

“P코로나 선도·디지털·투명경영… 100년 한화, 김승연의 약속”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 창립 68주년

김승연 회장 “위기, 대전환의 동력”
위기대응에 민첩한 시스템 구축해야
지역사회 릴레이 사회공헌활동 진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창립 68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사업 전략과 선도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12일 한화그룹 사내방송을 통해 “위기를 미래 창조의 족매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하자”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지속가능’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 창립기념일은 매년 10월 9일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생략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는 삶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위기”라며 “대전환하는 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혁신을 넘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의 일상화를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 인프라와 조직문화로 위기대응에 민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언급했다. 금융 부문에는 앞선 금융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제조 부문에는 AI 및

빅데이터를 접목한 스마트 공장 환경 구축을, 서비스 부문에는 디지털 기술로 고객 일상에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주도할 사업 전략과 선도적 역량 ▲디지털 기반 인프라·조직문화를 통한 위기 대응 ▲책임·투명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혼란을 야기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미래를 창조하는 족매가 된다”며 “이번 위기를 대전환의 동력으로 삼아 100년 이상의 기업을 만들자”고 밝혔다.

한편 한화그룹은 창립 68주년을 맞아 릴레이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간다. 각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대면과 대면 사회공헌활동을 적절히 조합해 거리 두기로 더욱 어려울 수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할 계획이다.

판교 지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디펜스 등 5개사는 임직원 개인 물품을 기증하는 비대면 행사를 기획했다. 한화디펜스 창원 2사업장에서는 한화예술대학 활동의 일환으로 국악 배움 활동이 진행되었고, 어르신용 손수레인 ‘사랑의 나르미카’ 20대도 기증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사업보국’의 창업 이념과 ‘함께멀리’의 사회공헌 철학을 통해 창립 68주년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전화기로 날씨 알림”… T전화에 AI 결합

SKT, 맞춤형 콘텐츠 추천 ‘투데이’
이통사 관계없이 T전화 이용고객

SK텔레콤이 T맵과 셋톱박스에 이어 약 1200만명이 이용하는 T전화에도 자사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를 결합한다. 일명 ‘전화의 지능화’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도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결합해 플랫폼 진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향후 T전화를 AI 비즈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광고나 구독 등 비즈니스 모델도 적용해 수익 창출에도 나선다.

12일 SK텔레콤 이현아 AI서비스단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T전화×누구’ 출시 간담회에서 “T전화×누구에 광고나 구독 모델을 전개시킬 생각”이라며 “AI 기술을 이용해 사용자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사람과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돼 연결성을 확대시키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는 AI가 탑재된 T전화×누구



SK텔레콤 이현아 AI서비스단장이 ‘T전화×누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를 통해 대화하듯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통화와 문자를 할 수 있다. 음성만으로 통화와 문자 수발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으며 통화·문자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전화 수신 및 수신 거절, 전화번호 검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서의 도움을 받는 듯한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T전화×누구가 삼성전자 ‘빅스비’, 애플 ‘시리’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

단순 커뮤니케이션 기능뿐 아니라 개

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투데이’도 선보였다. 예를 들어 T전화×누구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면 아침 인사와 함께 날짜와 날씨, 주요 뉴스 등 정보를 알려주는 식이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맞춤 메뉴나 추천 음악도 확인할 수 있다.

T전화×누구는 이날 T전화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이통사 관계없이 T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T전화×누구 출시를 시작으로 AI 기반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내년 중에는 음성과 문자를 결합한 ▲컨버터블 콜 ▲통화 녹음 STT 등 AI서비스 확대와 함께 ▲추천형 서비스 ▲검색 광고·쿠폰 등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해 비즈 플랫폼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SK텔레콤은 T전화×누구가 삼성전자 ‘빅스비’, 애플 ‘시리’와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LG전자, 탈모인 100명에 프라엘 쏜다

대국민 사연 공모 행사

LG전자 가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들에 프라엘 메디헤어를 쏜다.

LG전자는 이달 말까지 프라엘 메디헤어 출시 기념으로 대국민 사연 공모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으로, 프라엘 메디헤어 이벤트 페이지에 사연을 응모하면 참여할 수 있다. 100명을 선정해 프라엘 메디헤어를 무상 제공하며, 다음달 중 유튜브 인기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최종 사연을 소개한다.

LG 프라엘 메디헤어는 헬멧 형태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3등급



LG전자 프라엘 메디헤어. /LG전자

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허가를, 美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가정용 의료기기 수준의 클래스II 인기를 각각 받았다

‘저출력 레이저 치’ 방식을 활용해 모발 성장을 돋우고 안드로겐성 탈모 진행도 늦춰준다. 레이저(146개)와 LED(104개)를 포함한 총 250개 광원에서 에너지를 내뿜는다.

/김재웅 기자 juk@

현대로템 K2전차 부품업체와 3차 양산 협의회

13개 주요 핵심부품업체

현대로템이 K2전차 부품업체들과 3차 양산계약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했다.

현대로템은 8일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위아, 두산인프라코어 등 13개 주요 핵심부품업체 관계자들과 ‘K2전차 3차 양산계약 준비 검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대로템은 체계업체로서 K2전차 3차 양산계약과 관련해 방위사업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주요 협력사들이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연내 양산 계약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현대로템은 체계업체로서 K2전차 3차 양산계약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내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협력사 관계자들은 최근 변속기의 품질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연내 K2전차 3차 양산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1100여개의 중소 협력사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현대로템 K2전차.

으로 우려했다.

또 이들은 변속기 문제로 K2전차 3차 양산사업 전체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방산업체들의 생존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연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현대로템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7월 방사청에서는 K2전차 변속기의 국방규격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없을 경우 K2전차 3차 양산사업에 국산 변속기를 탑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변속기의 품질검사는 지연 중에 있다. 이로 인해 K2 전차 협력사들은 올해 35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1100여개의 중소 협력사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양성운 기자

맥도날드에 삼성 사이니지 메뉴판 뜯다

삼성전자, 고양삼송DT점 공급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메뉴판도 삼성전자 사이니지로 교체된다.

삼성전자는 맥도날드 고양삼송DT점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사이니지는 디지털 기술로 영상과 정보를 전달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맥도날드를 찾는 고객들에 음식 메뉴와 광고, 할인 이벤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맥도날드에는 드라이브스루 레인 쇼윈도에 스마트 아웃도어 사이니지가 설치됐다. 디스플레이 양면을 사용하는 세미 아웃도어 사이니지 등 8대로, 고객들이 차에 탑승한 채로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관리자가 한국 맥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레인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도날드 전 지점 메뉴판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토플솔루션 프로그램 ‘매직인포’도 제공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신규 오픈하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부터 매장 내 디지털 메뉴 보드 용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한 데 이어, 드라이브스루 메뉴판까지 모두 디지털화했다.

/김재웅 기자